서효인의 '좌측담장'

귀향 스토리

팀에서 내쳐진 베테랑 야구 선수들의 모습은, 원치 않은 퇴사를 앞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계약에 따라 어긋남 없이 일했지만, 남은 것은 부담스러운 나이뿐. 같은 회사(팀)에는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이들이나, 연봉이 더 저렴한 후배들이 차고 넘친다.

회사의 계획은 치밀하고 합리적이다. 개인은 회사의 엄밀한 계획성 앞에 체스판의 말처럼 놓여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 명령이 이제 이 판에서 나가 달라는 것이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도리는 별로 없다. 현실 세계의 사람이 체스 게임의 말과 다른 점은, 어쨌든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이든, 또 다른 회사든, 태어난 고향이든, 그 어디든 간에 사람은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서 다른 시작을 꿈꿀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외국인 선수와 계약은 진즉에 마쳤고, 양현종에 이어 김주찬까지 계약에 성공했으므로 우승 전력이 그대로 남은 셈이다. 이제 스프링캠프에서 시즌 개막을 준비하면 될 텐데 남은 소식이 하나 더 있으니, 1999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해 현대-LG를 거쳐 지금은 소속팀이 없는 내야수 정성훈의 영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듯하다. 어떤 영입이든 계약서에 양측의 사인이 박히기 전까지 100%란 없는 일이지만, 언론 보도라는 군불은 오늘 저녁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정성훈 선수가 조계현 단장과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온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정성훈은 '해태' 타이거즈 출신이다. 1980년에 태어났으니 우리나라 나이로 39세. 1999년 이후 18년 동안 통산 2135경기에 출장했다. 그리고 1경기만 더 출전하면 양준혁을 넘어 프로 통산 경기 출장 1위 선수가 된다. 그는 송정초등학교, 무등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나온 그야말로 광주가 키운 유망주였지만, 입단 3년차에 박재홍과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 유니콘스로 적을 옮긴다.

정성훈은 기나긴 선수 생활을 증명하듯 임시 연고지 수원, 모기업의 위기와 팀 매각, 최초의 스폰서 운영 구단 등 산전수전을 겪다 FA 자격을 얻어 서울로 거처를 옮긴다. LG에서의 활약은 나쁘지 않았으나, 리빌딩을 (수년 째) 선언 중인 팀은 그를 방출한다. 돌고 돌아 다시 고향 팀에서 뛸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18년 만의 귀환이라니, 가히 그리스 비극의 '귀환 스토리'와 비견될 만한 스케일이지 않은가.

돌고 돌아서 기어코 순환선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연어 같은 이야기는 앞서 하나가 더 있다. 가난한 구단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부자 팀으로 현금을 얹어 트레이드된 초대형 투수 유망주, 임창용이 사연의 주인공이다. 해태 시절 마지막 우승의 순간 신인이었던 임창용은 헹가래의 끄트머리에서 쑥스러운 듯 박수를 치고 있는데, 2017년 우승의 순간에는 선수단의 최고참으로서 헹가래의 당사자가 되었다.

사실 그의 귀환은 정성훈의 그것보다도 모양새가 좋진 않았었다. 그가 속했던 팀은 도박 파문으로 급작스레 쑥대밭이 됐고 그리하여 우승을 놓쳤으며 여기에는 임창용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그는 소속 팀에서 방출된다. 수많은 우승 반지, 일본 리그를 점령하고 메이저리그까지 밟아 본 전설적인 투수가 해외 원정 도박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가 돌아올 곳도 결국 고향인 타이거즈밖에 없었다.

프로야구에서 과도한 지역주의는 때로는 화를 부르고는 한다. 특정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선수단의 파벌이 생길 수도 있다. 능력보다는 연고에 의한 코치 선임으로 인해 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일부 팬들은 저열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댓글에 프로 야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감안하더라도 KBO리그의 지역 연고제는 꽤 튼튼하게 자리 잡은 편이다. 40년을 향해 가는 리그는 그간 나름의 역사를 켜켜이 쌓아 왔으며 그 역사는 각 도시에 자리 잡은 팀과 그에 속한 선수, 그들을 응원하는 팬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른 팀에서 커리어를 이어 간 고향 출신의 선수가 은퇴 직전 마지막 불꽃을 태우러 귀환하는 스토리 또한 길게 이어진 리그의 역사 중의 한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좋은 선수가 많이 배출되고, 한때의 영화와 긴 굴곡을 겪었던 광주라는 지역을 연고로 한 야구 팀이 가져야 할 특유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구단과 선수 그리고 에이전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도 비즈니스에 입각한 언어일 것이다. 고향·귀향·열정 같은 심약한 단어들은 끼어들 틈이 없을 것이다.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백억 원에 이르는 돈이 거래되는 현장이 그토록 센티멘털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이 만들고 사람으로 진행되며 사람들이 모여 보는 스포츠이고, 우리 사람은 이야기라는 걸 참 좋아한다.

집 떠난 이가 이러저러한 굴곡을 겪고 다시 돌아오는 스토리는 여러 형태로 오래 재방송된 인기 있는 콘텐츠다. 정성훈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 이 계약이 끝내 성사되진 않을지라도. 〈시인〉

의료칼럼

무거워진 아이들, 이대로 자라도 괜찮을까?

김 동 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통념 때문에 아이의 비만을 방치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어릴 때 생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한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소아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소아에게 가장 흔한 영양 장애로, 매년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학동기(學童期)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8.36%에서 2016년 14.3%로, 유·소아기 비만 유병률은 2008년 1.4%에서 2016년 2.8%로 거의 2배씩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고도 비만 소아의 발생률도 높아졌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는 2012년 2.2%, 여아는 2.0%였으나, 2016년에는 각각 3.4%, 2.7%로 증가했다.

우리 아이가 한눈에 봐도 비만임을 알아볼 정도라면 당장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아이의 키와 몸무게로 아이의 비만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비만으로 진단하고 중증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흔히 체질량 지수와 비만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이가 뚱뚱해지는 이유는 비만에 걸릴 수 밖에 없는 생활 패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TV 시청·컴퓨터 게임·비디오 게임 등 비활동적인 생활로 인해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드는 반면 고지방·고칼로리·저섬유식,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등으로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외에도 아이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역시 비만의 원인이다. 학교 수업시간만 살펴봐도 아이들의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체육 시간은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되는 수면 시간은 줄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비만을 부추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식욕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소아 비만의 원인으로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데, 부모가 비만이면 자식의 80%,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이면 40%, 부모 모두 비만이 아니면 7%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비만의 경우 지방 세포수는 정상이고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것이지만, 소아 비만은 성장 시기에 있으므로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지방의 세포 수도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80% 이상이다. 비만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그 합병증들 때문이다. 대사증후군(고지혈증, 지방간 혹은 지방간염, 고혈압 등 심혈관계 합병증, 제2형 당뇨병), 수면 무호흡 증후군 등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다.

정상적인 성장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과도한 체중으로 관절이나 성장판에 무리를 주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신장이 크는 것을 막는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성조숙증도 소아 비만과 관계가 깊다. 성조숙증은 사춘기를 앞당겨 성장 가능 시기를 단축시킨다.

예를 들어 여아가 초경을 빨리 시작하면 남들보다 신장이 더 커 보이기도 하지만 최종 신장은 오히려 더 작은 경우가 많다.

남아가 비만일 경우 가슴 부위에 지방이 침착돼 마치 유방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거나, 지방이 쌓인 배로 인해 실제로는 정상이나 외부 생식기가 작아 보이기도 한다.

비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소극적이다. 비만으로 인한 열등감과 자신감 저하, 대인관계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심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엄격한 다이어트를 강요하거나 열량을 제한하는 일을 해선 안된다. 식사량을 조절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수정하는 일이 먼저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빨리 먹는 것은 과식과 폭식을 조장하므로 천천히 먹어야 한다.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기 쉬운 외식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식습관과 함께 생활 습관의 교정도 동반돼야 한다.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미디어를 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 수면 부족은 비만과 관련된 체내 각종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비만 아이들은 자신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모의 격려가 도움이 된다. 아이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칭찬하고 긍정의 말을 해줘야 한다. 비만의 정도가 심할 때는 소아과 의사나 간호사·영양사·심리전문가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기 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박 안 수
경제학 박사·전 농협장흥군지부장

교수신문이 지난해 사자성어를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정했다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정법(正法)을 드러낸다' 는 뜻으로, 어긋나는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내용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한다는 시의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올해는 황금 개띠인 무술년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자체 선거,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한 해로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시작되는 '포기'라는 단어가 결국 'N포'까지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말들과 함께, 첫 출근의 설레임마저도 접해 못한 청년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며, 경력 3년 이하 사회 초년생 가운데 학자금에 대한 빚이 3000만 원에 육박한 숫자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에서는 뒤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백인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다. 이후 정책 과정에서 착실히 이행한 듯 보이며,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최고의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는 등 오직 자국의 이익과 투자를 독려함은 물론, 실업 문제 해결에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젊은 마크롱 대통령 역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로 판단하여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일자리를 5년 새 330만 개 늘리고 법인세를 낮추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우리의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공공일자리 공약이 2030세대들의 지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이 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일자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국정 추진과제 1호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겸하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11조원을 집행하는 등 청년실업 개선을 위하여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언론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이 9.2%, 그리고 체감실업률은 21.4%로 쉽게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채용 일정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한 일정을 공고했으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올해보다 3000명이 증가된 2만 3000명을 뽑고,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의 기본 주체는 기업이다. 우리 사회는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 기업의 숫자가 3000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역으로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자금이 수백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들이 적당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였거나 여러 규제와 제반 문제로 국내 투자가 어려워 유보된 자금이라면 차제에 과감한 신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의 답답한 가슴을 터주길 희망한다. 아울러 경제 발전과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정도 경영의 기업인들이 더 많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주혁신도시에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한 상황으로 각 이전기관마다 나름의 현실적인 사정과 특성은 있겠지만, 현재 18% 내외의 지역인재 채용이 점차 확대되어 최소한 30% 이상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의 많은 인재가 채용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기회 비용을 막고, 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보다 높은 생산성과 함께 조직에 더 많은 충성심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 확대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합격의 영광을 맛보길 희망한다.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설립 계획을 하고 있는 '한전공대'의 설립에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에 훌륭한 대학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기를 지역민 모두는 간절히 바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최대의 복지이자 성장이며 답(答)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社 說

10년 끊긴 대북 민간 교류 이젠 활성화해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관계 복원의 물꼬가 트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및 시민단체들이 10년간 끊겼던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관계 해빙 분위기 속에 대북 인도 지원과 민간 교류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문화·스포츠·민간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광주형 남북 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추진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참관단을 초청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북한 문화 특별전시전도 열 계획이다. 북한에 신재생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남은 농도(農都)의 특성을 살려 굶주린 북한 아이들을 보듬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준공한 평양 발효콩 공장에 이은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북한 산모와 영유아에게 이유식 재료용 쌀과 미역을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도 병행한다. 오는 9월 개막하는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에는 북한 작가와 작품을 초청할 예정이다.

시·도 남북교류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광주·전남 대북 교류 사업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단됐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44억 원, 전남도는 34억 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했지만 활용하지 못했다.

그동안 대북 지원 등 민간 교류는 외형상 민·관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 민·관 네트워크가 모두 차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민간 분야의 대북 지원과 교류 협력은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화재 진압 급박한데 무전기가 먹통이라면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무전기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작동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한다. 화재 또는 각종 재난 시 장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전국 소방서 무전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광주·전남 소방 무전기 보급률은 63.9%에 불과했다. 이는 열 명의 소방관이 여섯 대의 무전기를 돌려쓴다는 의미와 같다.

그나마 보유 무전기 가운데 32.3%가 이용 가능 연수 7년이 넘은 낡은 장비인 탓에 실제 현장에 투입 가능한 무전기 보급률은 40%에 그쳤다. 무전기가 낡으면 아무리 꼼꼼하게 점검을 해도 전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7년이 넘은 무전기는 무조건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는 화재 직후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충북 소방본부 119상황실로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 왔지만 상황실과 현장 구조대 간 무전이 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무전 연결이 안 되자 상황실은 현장팀장에게 휴대전화로 알렸다고 하니 1초가 아쉬운 판에 참 한심한 일이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모든 소통은 무전으로 이뤄진다.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은 물론 퇴로 확보 등 소방관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게 무전기다. 그래서 소방관의 통신망 불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전남의 무전기 보유·성능 상황은 전국 평균에 약간 뒤떨어지지만 울산·세종·충남·충북의 무전기 보유율은 120% 안팎이다. 더군다나 대전·강원·충남·전북은 노후 무전기가 한 대도 없다고 한다. 우리 지역도 소방관 전원에게 각자의 무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케렌시아

스페인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된 '투우'(鬪牛)를 널리 알린 인물로는 뜻밖에도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꼽힌다. 18세 때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 다리에 중상을 입었던 그는 이후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종군기자로도 활동했다.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는 어쩌면 평생 '죽음'과 친숙했던 인물일지 모른다.

투우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32년에 펴낸 '오후의 죽음'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책에서 "전쟁이 끝난 뒤인지라 삶과 죽음, 다시 말하면 격렬한 죽음을 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투우장뿐이었고, 나는 그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스페인에 몹시 가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책에는 최고 투우사를 일컫는 마타도르 이야기도 실려 있다. 마타도르(Matador)는 투우 경기 막바지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로 '흑색선전'을 뜻하는 '마타도어'가 여기서 유래했다.

최근 '2018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된 '케렌시아'(Querencia) 역시 투우 경기에서 나온 말이다.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 귀소 본능을 뜻하는 케렌시아는 투우장의 소가 지친 심신을 달래는 장소를 말한다. 소는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경기장 안 특정 장소를 기억해 그곳을 자신의 케렌시아로 삼고 투우사와의 싸움에서 지치거나 죽음이 예상되는 순간이 오면 자신이 정한 케렌시아로 이동해 숨을 고른다.

최근 출간된 '아무튼' 시리즈는 '생각만 해도 좋은, 설레는, 피난처가 되는-당신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있나요'라 묻는 책이다. 무언가를 '계속'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계속'을 비롯해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망원동', '잡지', '스웨터', '쇼핑' 등 각자의 피난처가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관성, 그릇, 소주, 스릴러, 예능, 일본 철도, 잡지, 최신 가요, 택시, 편의점, 피아노, 호수 공원 등이 출간될 예정인데 제목만 봐도 흥미롭다.

시리즈 중 목수 김윤관이 펴낸 '서재'를 읽으며 '나의 피난처'를 생각해봤다.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만의 '케렌시아'가 있다면 정말 행복할 터다. 그게 사람이어도 좋고, 공간이어도 좋다. 누군가에게는 물건이나 취미일 수도 있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